

報 道 資 料 (Press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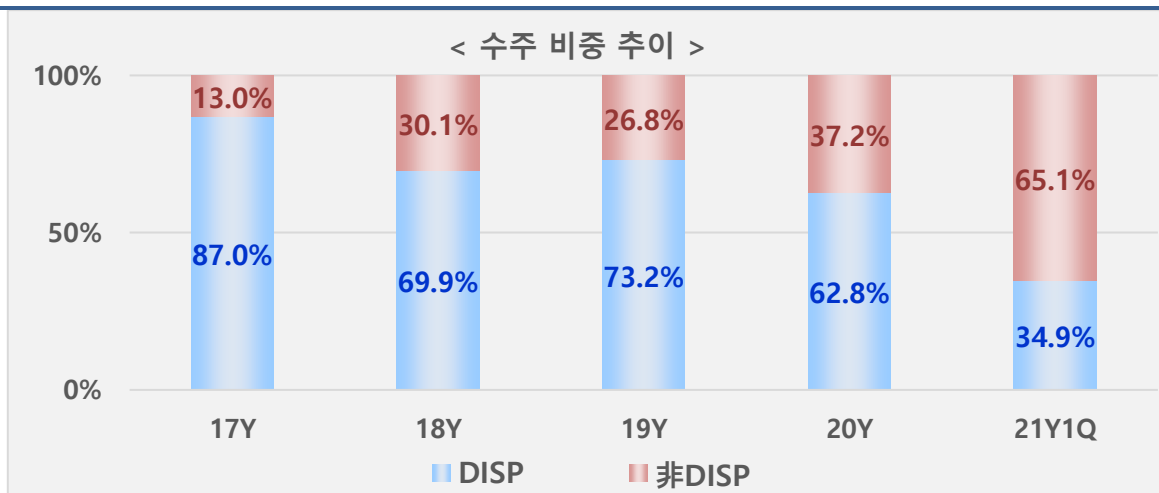
제 목	SFA, 이차전지/반도체 제조장비 사업 수주 확대 본격화
-----	---------------------------------

- 1분기 중, 이차전지/반도체 수주 실적 본격 확장 궤도 진입 신호탄 쏘아 올려
- 종합장비업체에서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리더'로의 진화 진행중

(주)에스에프에이(이하 SFA, 대표이사 김영민)의 급격한 사업구조 전환이 돋보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업체인 SFA는 성공적으로 이차전지/반도체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종합장비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나아가 자체 개발한 첨단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산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현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리더'로 진화하고 있다.

SFA가 14일에 제출한 2021년 1분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연결 기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556억원 및 영업이익 423억원으로 전년동기(매출액 3,676억원, 영업이익 43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별도 기준의 수주액은 1,327억원으로 전년동기(1,261억원)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얼핏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주목할 부분은 사업부문별 수주액 구성의 상당한 변화인데, 과거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 고객사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따라 줄곧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의 비중이 올해 1분기에 접어들면서 35%로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반도체 수주 호조에 힘입어 非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비중이 65%로까지 대폭 확장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중에 非디스플레이로 구분되는 이차전지부문의 비중은 29%로 확장되었으며, 반도체부문의 비중 역시 25%에 달했다.



SFA의 관계자는 “그간 이차전지/반도체 제조장비사업을 확장하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 왔는데,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 언급하며, 회사의 사업구조가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중심에서 최근 글로벌 설비투자 역동이 거센 이차전지/반도체 사업부문으로 다변화되는 신호탄이라 평했다.

각 산업별 고객사의 설비투자 상황에 따라 분기단위의 실적 변동성이 높아 1분기 실적만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SFA는 이차전지/반도체 사업부문에서 고객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 영업활동 반경이 대폭 확장된 상황에서 이차전지부문의 외관검사기와 3D CT 비파괴검사기 및 반도체부문의 OHT 등 스마트팩토리 기술 접목을 통해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한 신규장비들에 대한 각 고객사의 양산라인 확대 적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SFA는 올해가 이차전지/반도체 사업부문의 수주 확대를 통해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중심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팩토리 요소기술을 각 산업분야의 제조장비에 적극 접목함으로써 ‘종합장비업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리더’로 진화하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고 있다.

한편, SFA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권시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애널리스트 및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IR미팅 진행 활성화는 물론, 회사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Tech Seminar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각종 전시회 적극 참여 및 유튜브 등의 의사소통 채널 확대를 통해 SFA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더욱 널리 알려 회사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